

자광 “아파트 먼저” 꿈수…시민단체 반발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
특혜 중단 촉구

전북민언련, 전북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주시민회, 정의당·진보당 전북도당 등 7개 단체가 20일 전주시청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자광의 아파트 우선분양 요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민단체 “추가 특혜 중단” 촉구

재정 부실·사업 지연 강력 비판

“9월 시한 넘기면 협약 해지해야”

전주시 “동시 착공 원칙 고수”

전주 서부신시가지 핵심 부지인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행사인 ㈜자광의 재정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주시에 추가 특혜 중단과 협약서에 따른 엄정한 원칙 집행을 촉구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주시민회, 정의당·진보당 전북도당 등 7개 단체는 20일 전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 편취와 특혜로 얼룩진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전주시는 ㈜자광에 대한 추가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자광은 서부신시가지 일반 공업지역을 준주거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대폭 종상향하는 용도변경 특혜를 받았음에도 2024년 10월 금융권 대주단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EOD) 통보를 받고 개발부지 재산세 체납으로 전주시에 압류당하는 등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광이 대형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자 협약서의 핵심인 ‘동시 착공·동시 준공’ 원칙을 깨고 ‘아파트 우선 분양·준공(단계별 준공)’으로 변경하려 전주시를 압박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동시 착공·준공 의무를 면탈하려는 자광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25년 9월 29일 조건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후 1년이 경과하는 오는 9월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전주시는 사업시행 협약서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협약 해지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며 “10년째 개발의 걸림돌이 된 부실 행사를 과감히 걷어내고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개발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시장이 밝힌 바와 같이 ‘동시 착공·동시 준공’은 협약서 내용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행정에서 임의로 특혜를 주거나 규정을 완화해 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용도변경이나 공공기여 산정 관련 특혜 의혹은 과거 감사원 주민감사 청구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아 모두 기각된 사안”이라며 “시행사 측이 시공사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와 맺은 협약 내용을 준수해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는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약 23만㎡ 규모의 부지다.

2000년대 초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제외된 이후 도심 속 공업지역으로 장기간 방치되다 2017년 ㈜자광이 매입하면서 153층 초고층 타워와 복합 쇼핑몰,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이 추진됐다.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 교통 대책, 초고층 개발의 사업성 등을 둘러싸고 장기간 특혜 논란과 갈등이 지속돼 왔다.

/최성민 기자

전북민언련, 전주시 인사 규탄 “공보담당관 임용 ‘권언유착’”

“조지훈 전주시장의 폴리넨리스트 임용을 규탄한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일 조지훈 전주시장이 김성아 전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임용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전주시가 김성아 전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시정 홍보와 언론 소통을 총괄하는 공보담당관(개방형직위 5급)에 8월 18일 최종 임용했다. 지역 시민사회와 언론계가 권력과 언론의 부적절한 결탁을 꾸준히 경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언론인 출신 인사의 고위 공직행을 공식적인 행정 인사로 관철시킨 것이다. 선거 보도를 지휘하던 언론인이 직후 해당 당선인의 공보를 책임지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은 과거 보도의 객관성마저 소급하여 의심하게 만드는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이다.

이번 공보담당관 임용은 그간의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비판을 철저히 묵살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성아 신임 공보담당관은 전북도민일보 정치행정 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6월 8일 자 지면에 기명 기사를 작성한 직후,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대변인으로 등장했다.

이에 분회 등 7개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저널리즘 훼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다수의 지역 언론과 미디어 비평지에서는 해당

사안의 문제를 연속적으로 보도하며 지역 사회의 우려를 부각했음에도, 전주시는 이를 외면하고 최종 임용을 강행했다.

이러한 무리한 인사는 정치권력을 통해 공직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되어 현장에 남은 언론인들의 비판 의식을 저하시킨다. 결국 언론이 행정 권력과 동조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 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공적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크다.

조지훈 시장은 과거 대변인 발탁 당시 제기된 윤리 훼손 지적에 대해 ‘능력을 보고 발탁했다’라며 정무직 편의주의로 논란의 본질을 회피한 바 있다. 나아가 개방형 직위 공모라는 형식적 정당성으로 포장해, 결국 정치권으로 직행한 언론인에게 보는 인사를 강행했다. 행정 권력과 언론의 유착 우려를 낳은 이번 인사는 향후에도 전주시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권언유착을 공식화한 조지훈 시장의 인사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지훈 시장은 비판 여론을 외면한 이번 인사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6년 8월 20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병직·박민·정무영

전북도, 현대차 새만금 투자 지원 추진상황 점검

17개 부서 참여 추진상황보고회

AI 데이터센터·로봇 등 지원 강화

메가특구·RE100산단 지정 대응

2027년 착공 목표 단계별 관리

전북도가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고성장 경제부처 주재로 관련 17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 투자지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현대차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업 과제를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정부종합지원계획’과 ‘전북도 현대차 종합지원계획’을 토대로, 정부 과제 가운데 도가 직접 주관하거나 뒷받침해야 할 핵심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요 과제로는 ▲AI 데이터센터 건립 ▲로봇 제조공장 및 수전해 플랜트 구축 ▲메가특구·RE100산단 등 주요 특구 지정 대응 등이 담겼다. 기업이 안정적인 투자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장정철 기자

김민석 “조희대 물러나라” 전국에 현수막 지시

대법원 “헌법파른 제청…사전 협의”

민주 “사전에 대통령과 협의 없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했다.

앞서 김 대표는 대표 취임 첫날인 지난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없이 대법관후보 2명을 제정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조희대씨 물러나라’라는 등의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 은하수공원



김민석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에서 고 이회찬 전 총리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후 전국에 현수막 두 개를 필수 게첩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지시한 현수막 문구는 ‘민주

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두 가지다.

김 대표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여는 연속 집권의 판을 당대표 김민석이 이룩한 전 대표 뜻을 이어 확실하게 만들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법원측은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이 제청할 수 있고, 사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했다’고 해명했으나, 민주당은 대통령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면서 물러나라면서 거부할 경우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부안군
BUAN-GUN

부안사랑 부안 지킴이

부안군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모금된 기금은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방법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세액공제
2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은행
(http://www.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내

기부금액	세액공제+답례품
100,000원	130,000원
200,000원	204,000원
1,000,000원	576,000원
5,000,000원	2,436,000원
20,000,000원	9,411,000원

문의처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 고향사랑협력팀
TEL: 063-580-4938~9

지금바로 기부하러가기

1

지정기부
아생법
불봉이를
지킵니다

2

어르신
목욕비를
지원합니다

3

청년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농협 전북 이전, 농생명 혁신 ‘마지막 퍼즐’”

전북연구원, 농협중앙회 이전 제안
연구·산업·금융 잇는 가치사슬 구축
K-푸드 수출 생태계 완성 전략 제시
농생명 투자형 금융플랫폼 구성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이 20일 이 슈브리핑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농협경 제지주·농협금융지주 등 관련 기관의 전북특별자치도 이전을 제안했다.

국가 농생명산업 혁신체계를 완성하 고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바로 농협이라는 것.

전북은 국내 어느 지역도 갖지 못한 농생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4개 국립과학원, 한국식 품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핵심 연구기관이 집적해 있으며 이들 기관이 집행하는 연간 연구개발 예산만 1조 원 을 넘어선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89개 입주기업 과 산업화 기반을 갖추고 새만금은 첨 단 농업·물류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까지 자리해 연구·산업· 금융을 아우르는 삼각 축이 형성돼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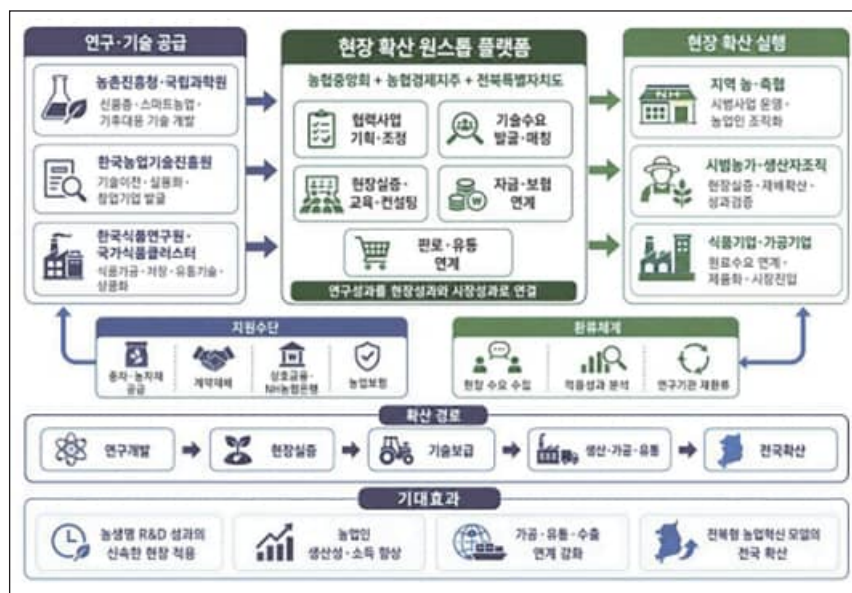
다. 이슈브리핑은 우수한 R&D 성과가 현 장 보급, 시장 확산, 금융 지원으로 이어 지지 못한 채 단절돼 투자 실효성이 떨 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1차 공공 기관 이전에서도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연계되지 못한 기관은 파급효과가 제한 적이었으며 정책과 자금을 결정하는 핵 심 기능은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러 있 다. 농촌지역 소멸위기와 지역 농축협의 경영기반 약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현 장을 촘촘하게 아우르는 농협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진단이다.

이에 연구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 닌 농협중앙회의 정책·조정 기능과 경 제지주, 금융지주의 유통·자금 기능 등 이 함께 전북에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농생명 혁신체계를 완성하고 제대 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농협중앙회의 전북 유치를 통해 농 생명산업을 고도화하는 전략으로 다음 세 가치를 제시했다.

첫째, 연구성과의 혁신 확산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이다.

전북에 집중된 농생명 R&D 성과를 농 협의 조직망을 통해 현장에 즉각 보급 하는 전달체계 혁신으로 구조적 단절을 해소할 수 있다.



농생명 연구성과와 현장 확산 원스톱 플랫폼 체계
둘째, 글로벌 K-푸드 수출 생태계의 완성이다.

농가의 계약재배(원료 조달)부터 국가 식품클러스터(제품 개발 및 가공), 농협의 촘촘한 유통·물류망, 새만금 신항만 (수출)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산업육성형 농생명 금융플랫폼 구축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 으로 조성된 전북의 금융중심지 역량과 농협금융지주를 결합하는 전략이다. 이

<사진=전북연구원>

를 통해 기존의 단순 대출을 넘어 스마 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신산업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지원하는 거대한 투자형 금융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

특히 연구진은 “농협중앙회의 전북 이전은 특정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니 라 국가 농생명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 계 끌어올리는 전략적 선택이다”며, “연구·산업·금융을 전북에서 하나의 거대 한 가치사슬로 꿰어내어 농촌의 소멸위 기를 극복하고 농정 대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박지원 “국립의전원, 남원 단일 캠퍼스 우선”

복지부 이원화 구상 강력 비판
“2018년 당정협약 약속 지켜라”
정 장관 “세부 계획 확정 안 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의 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설립 부지’와 관련 “복지부가 2018년 당정협 의에서 제시했던 원안대로 전북 남원 ‘단일 캠퍼스(일원화)’ 방안을 우선 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달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국립중앙의료원(NMC) 부지 활용’ 발언을 언급하면서 집중 촉구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께 국립의료원(서울) 인근에 국립의전원 본원을 설치하고, 지방에 분원을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만일 이같이 국립의전원이 서울에 설 치될 경우, 국립의전원을 통해 지방의료 인력 확보 등을 하려는 당초의 목적과 다르다.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정 장관의 서울 부 지 언급에 대해 “설립준비위원 회가 구성되어 논의하기도 전 에 복지부 장관 이 특정 부지를 희망한다고 발인

한 것은 자율적 논의를 저해하는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의전원 서울본원과 지방분 원’을 검토한 것에 대해 “지역의료와 공 공의료로 담당할 인력을 육성한다면서 인프라가 과포화된 서울에 캠퍼스를 두 겠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며 “실제 자원과 권한은 서울에 집중하고 지방에는 겹떼기만 남겨둔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사례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18년 당정협약 당시 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국립 공공 의대를 설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던 보 도자료와 영상을 제시하면서 “당시 남

원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가가 약속한 사안”이 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임 상 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진행하는 것 과 서울에 별도 캠퍼스를 두는 것은 완 전히 다른 문제”라며 “지역민과 남원 시 민들에게 혼란을 준 만큼, 설립추진위원 회에서 당초 약속된 남원 단일 캠퍼스 방안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중앙 의료원은 공공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 로서 임상 교육과 수련이 필수적”이라 며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 며, 법적 근거와 여러 여건을 고려해 설 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계획을 마련하 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 설립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설립 추진 과정 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행기겠다”고 밝 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중소기업-공공기관
공공구매 상담

전북도는 20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도내 중소기업 56개사와 공공기관 2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전북기업과 함께하는 공공구매 전시상담회’를 개최했다.

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 한 이번 행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을 공공기관에 알리고 실제 구매와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 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공 기관 구매담당자와 도내 중소기업 관계 자들이 참여해 총 161건의 1:1 구매상담을 진행했다.

행사장에는 도내 20개 기업의 제품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홍보관도 마련됐 다.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은 전시 제품 을 확인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제품 특 성과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상담을 이 어갔다.

도는 이번 상담회에서 이뤄진 상담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9월 부터 12월까지 상담 결과와 만족도, 공 공구매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與,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단축법 처리

패스트트랙 330→90일 단축
부의 후 첫 회의서 상정 가능

국회는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지연시켰다.

민주당은 현행의 패스트트랙법의 심사기간이 최장 330일까지로 신속한 현안 처리를 할 수 없다면서 90까지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상임위원회에서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선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본회의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을 부의 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패스트트랙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이 아닌 90일 내외에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슬로트랙이라는 오명을 붙은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해 국회가 민생 현안에 제때 응답할 수 있도록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사진=전북도>

전북도, 가뭄 장기화 대비 농업 현장 대응 강화

고정삼 부지사 고창·부안 점검
도, 재난특고세 16억 추가 확보

전북도가 최근 강우에도 농업가뭄이 이어짐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20일 고정삼 경제부지사가 고창군 심원면과 부안면의 벼와 고추 재배현장을 찾아 농작물 생육상태와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19일 기준 도내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4.6%로, 평년 69.7%의 49.7% 수준이다. 최근 강우에도 저수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지역별 용수 상황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고 부지사는 벼와 고추의 생육상태를 살펴보고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 들로부터 용수 공급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급수차와 양수장비, 관정 등 가용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하천수와 퇴수 재이용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용수 확보대책을 지속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재정지원과 비상급수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 2억원과 도 재난관리기금 10억원 등 12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3,5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특별교부세 가운데 13억3,500만원은 양수기와 송수관로, 물백 설치, 하상굴착 등 농업용수 확보에 활용하고, 나머

지 3억원은 가뭄 취약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등 생활용수 지원에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는 농업가뭄 대책 합동상황실을 운영하며 지역별 저수율과 용수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고정삼 부지사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용수를 확보하고 퇴수 재활용과 물고 관리 등 현장 여건에 맞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도!

냉방설비 효율은 설정온도, 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외부 온도와외의 차이는 5~6℃, 습도는 40~70%를 유지할 때 가장 쾌적하답니다. 적정한 실내 냉방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쾌적성에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하도록 해요.

전기안전공사, 자연재해피해복구 ‘총력’

남화영 사장 및 임직원
집중호우피해지역
거제·통영 전기안전
점검 및 현장 대응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경남 거제 지역민 수해 피해 현장에 찾아 국민자연재해피해지원에 굵은 구슬땀을 흘렸다.

앞서 공사는 기상청 예보를 중점으로 이번 집중호우 시작부터 정전 사고에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침수 피해를 입은 통영 서호전통 시장 점포 300여곳 전기설비를 점검하며 피해 상인들의 신속한 영업 재개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공사는 거제시 장평초등학교 인근 수해지역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전기안전 여건을 살피고 침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감전·누전 등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복구에 집중하며 현장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공사 남화영 사장과 임직원들은 피해 상황과 복구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남화영 사장은 “수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앞으로도 수해지역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피해지역 전기안전 확보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공사는 국민자연재해피해지원에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경남 거제 지역민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국민자연재해피해지원에 굵은 구슬땀을 흘렸다. <사진=전기안전공사>

있어 ‘총력 지원’을 중점으로 일상생 핵심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활복귀 및 전기안전사고 대응 전개를 /정소민 기자



<사진=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배수개선사업 추진

이상기후에 선제적 대응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 강우가 계속됨에 따라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배수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배수시설만으로는 강우량 증가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배수로 정비, 배수문 개선, 배수시설 확충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해 신속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농업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현재 월하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6개 사업지구가 각각 임피·대아·옥구·성산면 등의일원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신규 배수개선 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 농식품부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군산지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장 여건과 배수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배수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서기수 군산지사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와 극한강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후 복구보다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배수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북전주농협-부귀농협 ‘도농상생 1도 3농 운동’ 추진

도시·농촌 지속성장
기반 구축 ‘핵심’
“농업·농촌 발전 앞장”

북전주농협-부귀농협 ‘도농상생 1도 3농 운동’이 추진되며 새로운 농업·농촌 발전 기반 구축이 마련됐다.

‘도농상생 1도3농 운동’이란 도시·농촌 지속성장 기반 구축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북전주농협-부귀농협 ‘도농상생 1도 3농 운동’ 추진에는 다산 정약용 ‘3農정책’ △편농(便農) △후농(厚農) △상농(上農) 가치를 바탕으로한 균형 성장이 목표다.

나아가 농협 대표적인 사회공헌운동 일환이다.

협약을 통해 양 농협은 동반성장 위한 △사업 연계 △상생·협력 문화 조성 △

인적·물적 자원 교류 △농업인 소득향상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도농 간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특히 부귀농협 공동방제에는 올해부터 북전주농협 청년조합원 구성된 ‘전주 광역드론방제단’이 실시하며 농가 경영비 절감, 인력난 해소, 생산량 증대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부귀농협과의 도농상생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을 통해 협동조합 간 상생의 가치를 확립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농상생 1도3농 운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귀농협 김영배 조합장은 “이번 북전주농협과의 업무협약은 양 농협의 상호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 및 조합원 소득증대 또는 삶의 질 향상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농



북전주농협-부귀농협 '도농상생 1도 3농 운동'이 추진되며 새로운 농업·농촌 발전 기반 구축이 마련됐다. <사진=북전주농협>

상생 모범사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 이후 북전주농협 및 부귀농협 두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소득향상

농진청 ‘양파 안정 생산 핵심 수칙’ 제시

기후변화에 육묘 실패
늘어… 씨 뿌리는 시기
초기 싹 틔우기가 ‘좌우’

고온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 양파 모종을 기르는 초기 단계부터 생육이 고르지 않거나 모종이 약해질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안정적인 양파 모종 생산을 위해 지역별 아주심기 시기에 맞춰 씨를 뿌리고, 파종 직후 싹 틔우기(최아) 관리 수칙을 당부했다.

양파는 모종을 기르는 육묘 관리에 따라 생육과 수확량이 좌우된다. 최근에는

9월 이후에도 늦더위가 이어지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피해가 없도록 지역별로 씨앗을 제때 뿌리고 싹이 잘 트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육묘용 씨앗 뿌리는 시기= 씨앗 심는 시기는 모종을 본밭에 옮겨 심는 아주심기(정식) 시기를 거꾸로 계산해 정한다. 아주심기는 보통 45~60일 기른 모종을 하루 평균기온이 15도(℃) 정도에 달할 때 심는다. 지난해에는 남부지방 중만생종 양파 기준으로 내달 18일 이후 씨앗을 뿌리고 11월 상순부터 아주심기가 이뤄졌다. 올해 9월 온도도 평년보다 높을 예정으로 육묘용 씨앗은 내

달 18일 이후에 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묘용 씨앗 싹 틔우기= 싹 틔우기(최아 처리)는 육묘판(트레이)에 파종한 종자를 적정 온도와 수분 조건에서 싹이 트기 직전까지 관리하는 방법이다.

씨를 심고 물을 준 육묘판을 받침대(팔레트)에 5단씩 교차해 최대 30단까지 쌓는다. 겹은색 랩이나 비닐로 밀봉한 뒤, 20~25도(℃)의 그늘에서 2~3일간 보관한다. 처리를 마친 육묘판(트레이)은 곧바로 육묘상(모종 키우는 곳)에 배열한다.

기계정식용 육묘는 싹 틔우기가 더 중요하다. 빈 부분(결주율)이 적고, 모종

크기와 생육이 균일해지도록 기계정식용 씨앗은 구멍 448개짜리(448공) 육묘판을 활용한다. 또 기계정식용 전용 상토를 쓰고, 물을 알맞게 공급한다. 제때 물을 잘라주는 전엽과 함께 병해충 예방 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종채소연구센터 문지혜 소장은 “건강한 모종은 아주심기 뒤에도 뿌리내림이 빠르고 겨울을 나는 비늘(월동층)이 높으며 불철 생육 회복이 빨라 안정적인 수량 확보로 이어진다”며 “제때 씨앗을 파종하고 싹이 잘 트게 하는 등 기본 육묘 기술을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바이오진흥원, 전북 식품 기업 투자유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 위한 'IR 빌드업 데모데이'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행사는 도내 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투자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GS리테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씨엔티테크 등 7개 전문 투자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참여기업 IR 발표를 청취하고 전문적인 피드백과 사업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참여한 도내 식품 창업기업 7개사는 각 기업의 혁신적인 사업모델(BM)과 제품·기술의 경쟁력, 시장 확장 가능성 및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자들과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투자유치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데모데이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총 1억7백만 원 규모의 후속 지원을 통해 MVP 제작, 마케팅·시장성 검증, 공정개선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IR 빌드업 데모데이'를 도내 식품 창업기업과 투자생태계를 잇는 대표 플랫폼으로 정례화·고도화해 전북 식품산업의 창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설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조달청 ‘공공조달파트너십데이’ 개최

전북지방조달청은 20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관 ‘2026년 전북기업과 함께 하는 공공구매 전시상담회’와 연계해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파트너십 데이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비롯한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 간 맞춤형 구매 상담과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29개 수요기관 및 학교와 도내 중소기업 54개사가 참여해 제품 전시와 함께 1대1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공공구매 상담과 연계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비롯한 도내 기업들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게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소개하고, 실제 구매 가능성과 구매

절차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북지방조달청은상당 부스를 운영하며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여건과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상담을 통해 나라장터 이용과 조달시장 진입 절차, 다수공급자계약 등 주요 공공조달 제도를 안내하고 기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한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공공구매 상담회가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비롯한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알리고 실질적인 판로 확대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북지방조달청도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과 제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식품부 ‘한우산업법령’ 시행… 경영 안정 도모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중기업 이상은 저탄소 영농활동과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토지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 참여할 수 있다.

추가로 참여기업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한우수급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 등 기존 한우농가와상생방안 등 협력계획을 마련해 해당 시·군·구의 한우 생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협회사법인,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품목조합 등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를 기반으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를 구성해 한우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지원, 교육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또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농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제정된 한우산업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를 기반으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를 구성해 한우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지원, 교육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또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 태권브이 건축사사무소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앞장

군산시 조촌동(동장 박문주)은 태권브이 건축사사무소(대표 임채엽)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가게에 가입해 나눔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 등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나눔 프로그램이다. 태권브이 건축사사무소는 착한가게를 통해 정기기부에 동참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게 됐다. 이를 통해 마련되는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임채엽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박문주 조촌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태권브이 건축사사무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시는 소중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스마트농업·식품 바이오에 피지컬AI 입힌다

익산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학·연·관 전문가와 기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함께 미래로 피지컬 AI 추진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다함께 미래로 피지컬 AI 추진단’은 익산의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결성된 민간 협력체다. 원광대학교를 비롯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등 연구·지원기관과 하림, 현대농기계, 천일식품, 어큐메틱스 등 지역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막대한 첨단 기술 도입이 아닌, 익산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3대 분야 맞춤형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농기계 분야의 자율주행 트랙터 및 스스로 작업하는 AI 자율제조 △식품 분야의 지능형 품질 관리와 생산 자동화 등 공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과제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댔다.

특히 위원들은 기술 시험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생산성을 곧바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다듬어, 중앙부처의 신규 국가예산 확보로 직결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시는 정기 분과회의와 기업 수요조사를 촘촘히 이어가 익산이 잘하는 핵심 제조업에 피지컬 AI를 빠르게 입히고, 이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공습 대비 주민대피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훈련 공습경보가 울리자 정읍 센트럴카운티아파트 주민들이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지정 대피시설로 신속하게 이동했다. 정읍시는 20일 오후 2시 공습 상황을 가정한 주민대피훈련과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시민들이 비상시 행동요령을 익히고 소방차와 구급차의 신속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훈련이다.

센트럴카운티아파트에서 진행된 주민대피훈련은 공습경보 전파를 시작으로 주민 안내와 대피시설 이동 순으로 진행됐다. 대피를 마친 주민들에게는 비상시 행동요령과 주변 대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유호연 부시장은 현장을 찾아 경보 전파와 주민 대피 유도, 대피시설 운영 상태 등 훈련 전반을 점검했다. 훈련에 참여한 주민과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유호연 부시장은 “비상상황에서는 평소 대피소 위치와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이 시민 스스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유망기업 투자 ‘시동’

1000억원 규모 ‘전북지역성장펀드’ 참여… 30억원 출자

정읍시가 전북지역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1000억원 규모의 전북지역 성장펀드에 참여해 앞으로 5년간 30억 원을 출자한다.

시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전북지역성장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지역기업의 혁신 성장과 투자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결성식에는 이학수 시장도 참석했다.

전북지역성장펀드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자금의 불균형을 줄이고,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유망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투자기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조성을 주도했다.

이번 기금에는 정부 모태펀드 출자금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김제시, 익산시의 자금이 들어간다. 금융기관과 대학, 지역기업도 참여해 모두 1000억원 규모의 상위 투자기금으로 조성됐다.

조성된 자금은 전북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벤처기업을 찾고 육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추경예산안 1조 9,071억원 편성

본예산 대비 1,072억 ↑ 민생·현안 마무리 집중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예산 1조 7,999억 원보다 1,072억 원 증액된 1조 9,071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979억 원 늘어난 1조 6,663억 원, 특별회계는 93억 원 증가한 2,408억 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가용재원이 한정된 재정여건을 고려해 편성됐다. 시는 우선순위가 낮은 예산을 절감하고, 연내 집행

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출조정을 실시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데 집중했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복지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38억 원 △전기차·전기화물차·전기버스 등 친환경차 구매 지원 89억 원 △주거급여 14억 원 △국가유공자 수당 10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5억 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및 가로청소 대형 45억 원 △성산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자별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기금 출범을 계기로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새로운 투자를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5년간 30억원을 출자한다.

이학수 시장은 “전북지역성장펀드가 정읍의 주력산업과 유망기업에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 투자와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2천만 뷰 예능 타고 ‘관광 돌풍’

유튜브 ‘풍향중’ 방영 직후 방문객 3배 급증

유재석과 이성민, 지석진, 양세찬 등 국내 정상급 연예인들이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 ‘풍향중-익산로드’가 누적 조회수 2,000만 회를 돌파하며 전북과 익산 관광 활성화의 강력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총 3편으로 제작된 ‘풍향중’은 휴대전화와 내비게이션 없이 오직 종이지도에만 의지해 목적지인 익산을 찾아가는 무계획 국토여행 콘텐츠다.

익산시는 돌림판을 돌린 끝에 무작위로 정해진 목적지로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출연진이 충남 아산과 논산, 보령 등을 거치며 익산에 닿기 위해 길을 헤매는 모습이 이어졌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고향을 찾아 힘난한 여정을 떠나는 영화에 빗대어 ‘익산 오디세이’라는 별칭까지 붙으며 그 자체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사진=익산시>

그러나 정작 목적지인 익산에 도착하자마자 아쉽게 다음 여정으로 이동해야 했던 장면은 오히려 시청자들의 실제 방문 욕구를 강하게 자극했다.

온라인에서도 “꼭 직접 가보겠다”는 댓글이 쏟아지며 익산이 반드시 가봐야 할 종착지로 각인됐다.

익산시는 이 같은 온라인 화제성을 실제 관광객 유치로 잇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시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맛집과 교통 등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 댓글로 제공하며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펼쳤다.

해당 소통 글에는 ‘좋아요’ 5만 건이

넘게 달리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화제성은 곧바로 오프라인 관광 효과로 나타났다. ‘풍향중’ 익산 편이 방영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익산을 찾은 방문객 수는 전주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익산시는 화제성을 이어가기 위해 특별 환영 행사와 주요 관광지 연계 혜택 등 본격적인 오프라인 관광객 맞이 대책을 추진한다.

이울러 최정호 익산시장이 직접 출연진과 시청자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갑사 영상’도 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종이지도에 의지해 익산을 찾아준 출연진과 그 여정을 열렬히 응원해 주신 2,000만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댓글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익산을 찾는 모든 분이 큰 만족을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관광 편의와 환경 혜택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 전국에 알린다

전북도·농어촌공사와 협력해 홍보영상 제작

군산시(시장 김재준)가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와 캐릭터 ‘갑토리’를 활용해 군산의 먹거리와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린다.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와 협력해 갑오징어 ‘갑토리’를 소재로 한 홍보영상 2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지난 6월 9일 전국 최초로 선포한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을 계기로 기획됐다. 군산 갑오징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산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군산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소개하기 위함이다.

먼저 공개되는 영상은 ‘갑토리송으로 즐기는 군산 갑오징어 음식여행’이다. 쇼츠 형식으로 제작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트로트풍의 경쾌한 ‘갑토리송’을 배경으로 갑오징어 회와 숙회, 탕수육, 튀김, 볶음 등 다양한 요리가 등장한다. 감각적인 영상과 흥겨운 음악을 통해 군산 갑오징어의 신선함과 다양한 맛을 친근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와 재미있는 가사를 활용해 젊은 세대와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갑토리’를 군산을 대표하는 친근한 캐릭터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어 공개될 두 번째 영상은 산의 ‘갑토리’ 캐릭터가 관광자원을 친근하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제작돼, 군산의 아

름다운 관광지와 지역 특색을 자연스럽게 알릴 예정이다.

군산시는 앞으로 SNS와 유튜브 쇼츠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홍보영상을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갑토리’를 활용한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발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산 갑오징어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지역 수산업과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홍보영상은 전국 최초로 선포한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군산 갑오징어와 관광자원을 함께 홍보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흥겨운 음악을 통해 군산 갑오징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의회 “제2혁신도시 유치” 촉구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선도 성명 발표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는 20일 오전 익산역에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약 변경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며 익산시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선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익산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27만 익산시민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월돼 도지사가 공약했던 ‘익산시 제2혁신도시 유치’라는 핵심 약속을 믿고 커다란 기대감을 품었다. 그러나 최근 도정 공약 확정 과정에서 이를 ‘주요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꾸고 대상지를 ‘도내 전역’으로 분산·희석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약 변경은 “시민의 희생을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막대한 도정이 시작되자 이를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따라서 익산시의회는 “도지사의 공약 파기나 다름없는 이번 대상지 광역화 조치는 익산시민과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이자 익산 발전의 중대한 기회를 가로막는 처사”라면서 △익산시 제2혁신도시 유치 약속을 원안대로 즉각 이행할 것, △익산시를 제2혁신도시 조성사업 단독 대상지로 확정·공표할 것, △익산시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선도해 전북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충영 의장은 “우리 익산은 제1혁신도시의 소외를 묵묵히 견뎌왔고 더 이상 지역 소멸 위기를 방관할 수 없다. 또한 사통팔달 철도 교통 허브이자 농생명·식품·첨단산업의 최적지로서 제2혁신도시의 성공을 견인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제2혁신도시 유치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민 복지 수요 담아

정읍시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돌봄과 소득, 일자리 정책의 기준이 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내달 말 확정한다

시는 20일 시청 구절초회의실에서 정읍시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정읍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수행기관인 ㈜지식산업연구원은 그동안의 연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계획의 기본 방향과 세부 사업안을 발표했다.

사업안에는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실

시한 복지 수요 조사 결과와 지난 5월 민·관 합동 심층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참석자들은 정읍의 복지 여건과 시민의 필요에 맞는 정책인지 살펴보고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제6기 계획은 돌봄과 복지 안전망 강화, 소득 보장, 일자리 확대, 민·관 협력체계 마련 등을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시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분야별 사업을 하나의 종합 복지망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사업을 다듬을 예정이다.

이후 최종보고회를 거쳐 내달 말까지 계획을 확정한다./정읍=김정인 기자

군산해경, 직도 인근 실종 선원 수색 ‘총력’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군산 직도 남서쪽 약 10해리(18km) 해상에서 조업 중 바다에 추락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B씨(20대, 남성)를 찾기 위해 수색구역을 확대하는 등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57분경 군산 직도 남서쪽 약 10해리 해상에서 89톤급 근해통발 어선 A호(통영선적, 승선원 12명)의 선원 B씨가 조업 중 닻을 놓는 과정에서 닻줄에 발이 걸리며 해상으로 추락했다. 현재 수색에는 해경 경비함정과 유관기관 등 가용세력을 동원해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해상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군산해경은 이날 오전 7시부터 기존 반경 3해리권(6Km)던 수색구역을 4해리권(8Km)으로 확대해 구역별

로 수색세력을 배치하는 한편, 헬기를 이용한 항공수색도 병행해 집중수색 중이다.

앞서 야간에는 사고해역의 낮은 구름과 강수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제한돼 함정과 민간선박을 중심으로 수색이 진행됐다.

사고 당시 해역의 수온은 약 27도였으며, B씨는 신장 약 170cm의 마른 체형으로 사고 당시 검은색 상·하의와 흰색 장화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용리 수색구조계장은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사고 당시 해상 상황과 조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색구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민간세력 등 가용 가능한 수색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호리 홀로그램 페스티벌’ 준비 착착

익산시가 ‘호리 홀로그램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자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회 익산 호리 홀로그램 페스티벌’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정호 익산시장을 비롯해 김성규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장, 최대규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구성과 행사장 운영 등 주요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축제의 핵심인 홀로그램 기술이 현장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

도록 콘텐츠 구성과 연출을 보완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호리와 홀로그램 기술을 결합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 다른 축제와 차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익산 호리 홀로그램 페스티벌’은 ‘로케이션 X : 금지된 생방송’을 주제로 익산교도소세트장에서 열린다. 내달 10~13일과 18~20일 진행될 예정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홀로그램 기술과 교도소세트장이라는 특별한 공간의 강점을 살려 익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고창” 최선 2(題)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심덕섭 고창군수가 20일 오전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고창군 어린이 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심덕섭 군수와 강형철 고창군어린이 집 연합회장 및 어린이집 원장, 보육담당부서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고창군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며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고창군은 올해 어린이집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외 방역소독비를 지원하고 있다. 관내 18개소를 대상으로

현원에 따라 연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난해는 어린이집 조리의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조리사 대체 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앞서 2024년에는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집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고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사 역량강화’ 교육

고창군은 19일 고창군 여성화관에서 아이돌봄사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돌봄사 간담회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간담회는 ‘아이돌봄지원법’ 및 사업 지침 주요 변경 사항을 공유하고, 아이돌봄사의 직무역량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돌봄사들은 제도와 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사례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서비스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아이돌보미’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변경되고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됐다. 고창을 소재 ‘고창아이돌보미교육기관’이 민간 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돼 지역 내 양성·보수

교육 기반도 마련됐다. 고창군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영아종합일제·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지역에서 연간 80여 가정, 120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 연간 8000만원 규모로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있다. 김미란 인재양성과장은 “아이돌봄사는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돌봄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일자리평가 ‘최우수상’ 수상

6년 연속 성과 달성

김제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역 산업과 시민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2021년 우수상 △2022년 우수상 △2023년 최우수상 △2024년 대상 △2025년 우수상 △2026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일자리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 2024년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1위인 대상을 수상했고, 올해 다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다시 한번 돋보이게 했다. 금회 수상은 2024년 성과에 이어,

2025년 역시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2.3%p 높은 72.4%를 기록했으며, 상용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23,460명으로 역대 최고수치를 경신했다. 그 결과 자자체 합동평가 일자리 목표 대비 120% 초과 달성했다.

이는 김제의 신산업육성을 위한 외부 기업유치 및 농업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등의 노력을 통해 이룬 청년·여성 등 민간 고용 창출이,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선제 대응이라는 지역소멸위기 극복 노력의 성과로도 나타났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민선8기에서 다져온 일자리 정책의 기반 위에 민선9기에서는 고용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시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식품산업읍, 해풍고추 직거래한마당서 김치산업 알려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오늘부터 23일까지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2026 고창해풍고추 직거래 한마당’에서 고창산 김치소재를 활용한 김치 시식과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창신활력식품산업센터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2026년 특화품목6차산업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창 맞춤형 김치소재 6차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의 홍보사업으로 기획됐다. 고창의 대표 특산물인 해풍고추와 지역 농산물로 만든 양념 및 김치소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고창 김치의 맛과 가치를 전달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생기 원장은 “이번 축제는 해풍고추를 중심으로 한 김치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고창 김치의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친밀도를 높이고,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해 체험형 홍보 콘텐츠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을지연습 실제훈련’ 성료

“전시 상황 대비 철저히”

고창군이 지난 19일 오후 2시 고창공설운동장에서 2026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관·군·경이 협력해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제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 훈련은 적 특작부대가 고창공설운동장에 위장 잠입해 폭탄 테러를 자행해 건물 일부가 파괴됐고, 이로 인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특히 적 테러 격멸에 나선 군 기동타격대의 활약상은 훈련의 백미였으며 훈련을 참관한 주민들은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여러 유관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고창군은 군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합방위기관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전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추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김제시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6년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관내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5세대 내외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2천만원, 총 1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았다.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들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며 사업이 마무리됐다. 지원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무주택자로, △혼인7년 이내 신혼부부 △18세~39세 이하 청년이 해당

된다.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신규 계약자 및 입주(예정)한 경우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중 세대당 2천만원 이내이며, 1회 2년 지원을 원칙으로 자격 요건 유지 시 최대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지원사업이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디딤돌이 됐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의 매력을 사진에 담아주세요”

‘관광사진 공모’ 31일까지 접수

고창군이 지역의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알리고 매력적인 사진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2026 고창 관광사진 공모전’ 출품작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전국 사진 애호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고창의 문화·자연유산, 관광지, 축제 등 고창 관광 홍보에 적합한 미발표 작품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지난 공모전들과 달리 드론 촬영 사진을 특별 우대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기존 지상 촬영의 한계를 넘어 고창의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전경을 다각도

로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응모는 11×14 규격의 인화 사진(1인당 4점 이내, 출품료 2만 원)으로 접수하며, 마감일인 오는 31일(당일 도착분 유효)까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금상 1명(200만 원), 은상 2명(각 100만 원) 등 총 61점에 상금 1,150만 원을 수여한다. 심사 결과는 내달 7일 발표되며, 입상작은 향후 고창군의 각종 홍보물과 전시 등 공익 목적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고창의 숨겨진 매력을 담은 멋진 작품들이 많이 응모될 수 있도록 사진 애호가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디지털시민증’ 지역상권 살린다

1억 원 규모 캐시백

지원 연계… 가맹점 확대

김제시가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운영 중인 ‘김제 디지털시민제도’의 가맹점을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제 디지털시민제도’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디지털 시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민간 가맹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생활인구의 지역 방문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는 현재까지 총 35개소(카페 16, 소

매 8, 체험 4, 음식점 3, 생활서비스 2, 숙박 2)의 가맹점을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시민들에게 할인과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음식점·카페·숙박업소·체험시설 등 생활인구 이용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 가맹점을 적극 발굴하고,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디지털 시민증 소지자에게 사전 협약한 할인 또는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김제시 홈페이지·SNS·홍보물 등 온·오프라인 홍보 △김제시민제도 가맹점 공식 인증 현판 제공 △디지털시민 캐시백 사업 등 주요 인구·관광사업과 연계 홍보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통한 신규 고객 확보와 재방문 효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1억 원 규모의 ‘김제 디지털시민 캐시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외 디지털 시민증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3만 원 이상 결제하면 김제사랑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해 1인당 최대 2회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의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고, 가맹점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맹점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시청 성장전략실 인구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농촌 의료 공백 해소

양·한방 및 치과·안과 등 농촌왕진버스 ‘호응’

부안군은 20일 하서농협 대회의실에서 하서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네 번째 농촌왕진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농촌왕진버스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과 고령 농업인 등을 직접 찾아가 양·한방 진료, 치과·안

과 검진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관내 농협과 협력해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남부안·계화농협·부안중앙농협과의 세 번의 성황리 운행에 이어 진행된 이번 4회차 농촌왕진버스는 하서면 지역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이날 현장에는 대한의료봉사단,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더스토리 안경원 등 3개 전문 기관의 의료진과 봉사단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전문 분야별 맞춤형 진료와 검진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앞으로도 부안읍·동진면·백산면·주산면, 변산면·위도면 지역을 대상으로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

전북은행·유니세프 육아지원센터와 협력

김제시가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동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시는 20일 정성주 김제시장, 전북은행 박춘원 은행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재성 기업후원실장,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치우 과장,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고선옥 센터장 등 ‘프로젝트 169’협력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169’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9항의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분을 제공하고 출생등록을 포함한 법적 정체성을 보장한다’는 목표에 기반한 사업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기업, 지방정부, 민간기관 등이 협력해 출생 등록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 4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전북은행으로부터 6천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받으면서 김제시 ‘프로젝트 169’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김제를 비롯해 인근 지역인 익산시·전주시의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및 산모 15명을 발굴하고 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미등록

<사진=김제시>

/김제=온봉기 기자

순창군 ‘기본소득’, 지역경제 선순환

주민 1천명·가맹점 388곳 설문 긍정평가 증가·체감 효과 상승

순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책 효과와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3월과 6월 주민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1·2분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주민 1,000명과 가맹점 388개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농어촌기본소득이 거주 여건과 사회서비스, 주민 간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분기와 비교해 ‘매우 높음’

응답이 6%p 증가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기본소득은 주로 식품품과 생필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목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가맹점의 지역 내 원자재 구매 비율은 51%로, 1분기보다 7%p 증가했다. 이는 기본소득을 통해 발생한 소비가 지역 내 가맹점 매출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원자재 구매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먼 지역의 경우 기본소득 사용처 부족과 생활서비스 접근성 문제 등이 개선 과제로 나타났다. 주요 불편사항으로는 ‘사용처 부족’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서비스 전문성 부족’이 29%로 뒤를 이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로는 전기·수도 수리가 28%로 가장 많았고, 전기배출 26%, 가사도움 24%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먼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먼지역 생활서비스 확충과 가맹점 확대,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한우, ‘두수’ 아닌 ‘품질’ 성장 전환

올해 9개 사업 7억여원 투입 “한마리 가치 높여 소득 향상”

완주군이 한우산업 정책 방향을 단순 사육 규모 확대에서 사육 품질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2025년 기준 한우 출하 규모가 6,795두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3위권이지만, 마리당 소득(806만 5,000원, 13위)과 1+4등급 출현율(34.7%, 12위)은 상위권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생산 규모에 부합하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올해 한우 개량 관련 9개 사업에 총 7억 6,200만 원을 투입해 사육·유전체·헬통 개량을 연계한 체계적인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주요 과제는 발효사료(TMF) 가공시설 구축, 2,200두 유전체 분석·컨설팅, 저능력 암소 300두 도태 지원, 우량 씨수소 정액 1만 5,000회분 공급, 9,600두 암소 유전형질 개량 등이다.

특히 발효사료(TMF) 가공시설 구축에 공을 들인다. 조사료와 배합사료, 미네랄을 발효 기술과 결합한 발효사료는 영양 균형과 소화율을 높여 육질 개선과 증체를 돕는 동시에 분노 약취 감소 효과도 낸다. 완주군은 가공 인프라 확충으로 고품질 한우 생산 기틀을 다질 방침이다.

유희태 군수는 “단순히 사육두수를 늘리기보다 한우 한 마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선 9기에는 도내 출하규모 3위에서 품질과 농가소득까지 3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을지연습 ‘실전 방불’ 통합 대응훈련

민·관·군·경·소·방 합동 실제훈련 전기·통신 복구·방역 종합 점검

순창군은 지난 19일 국민체육센터에서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적 특수부대가 국민체육센터에 침투해 인명피해와 화재, 전기·통신시설 두절 등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군부대와 경찰, 소방, 보건 의료원, 한국전력공사, KT, 자율방재단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약 150명이 참여했으며, 장갑차와 구급차, 소방차, 드론 등 총 23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훈련은 적 특수부대의 침투 및 시설

공격, 군·경의 합동 소탕작전, 경찰의 현장 통제, 부상자 구조·후송 및 응급처치, 화재 진압, 전기·통신시설 복구, 현장 방역 순으로 실전과 같이 진행됐다.

특히 인명피해 6명(중상 2명, 경상 4명)과 시설 일부 소실, 전기·통신 두절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가정해 기관별 대응 절차와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 공유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훈련을 참관한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화장품 한자리에…‘춘향미인’ 문 연다

시민 공모 ‘춘향미인’ 명칭 선정 지역 5개 기업 제품 39종 선보여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남원지역 화장품 기업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 점점 강화를 위해 조성한 화장품 오프라인 판매장 ‘춘향미인’을 오는 24일 하나로 마트 남원농협 고죽점에서 개장한다고 밝혔다.

‘춘향미인’은 소비자가 남원 화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구매할 수 있는 상시 오프라인 판매 공간이다. 그간 진행된 단기 팝업스토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화장품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판매장에는 코비스, 원스킨화장품, 한미화장품, 제이그라운드, 하이슬 등 관내 5개 화장품 기업이 참여한다. 각

기업의 대표 브랜드인 앤서가든, 17아워즈, 오브한, 마리브, 림포디아 제품 총 39종이 입점하며, 지리산 등 지역자원과 자연 유래 성분,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기초·기능성 화장품부터 스킨·바디케어 제품까지 폭넓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판매장의 공식 명칭인 ‘춘향미인’은 시민 참여형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42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연구원은 사업 적합성, 창의성, 대중성, 마케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명칭을 확정했다.

‘춘향미인’은 지역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향후 남원 화장품 마케팅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전국 아동친화 지자체 연대·협력 이끈다

완주군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장 직무대행 도시로서 협의회 사무국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19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완주군이 협의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자리로, 하반기에 예정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실무자 교육, 금

전달식, 정기총회 등 하반기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회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정부협의회가 아동친화도시 간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지방정부협의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회원 도시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다슬기 125만마리 금지·산동면 요천 일원 방류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다슬기 치패 125만 마리를 금지면·산동면 일원의 요천에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다슬기 치패는 섬진강 수계에서 확보한 토종 어미로부터 종자를 받아 육성한 것으로, 전염병 검사를 마친 길이 7mm 이상의 우량 종자다. 방류된 다슬기는 이듬해 4~5월경이면 1.5cm 이상으로 성장해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슬기는 하천 생태계 유지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내수면 수산자원으로, 이른바 ‘하천의 청소부’로 불린다. 또한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재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로도 활용 가치가 높아 내수면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다슬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는 전국적으로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이며, 길이 1.5cm 이하의 어린 다슬기는 채취가 금지된다.

그러나 최근 수질오염과 무분별한 채취 등으로 다슬기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자원 조성과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다슬기 자원량 증대를 위해 최초로 다슬기 치패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류와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통해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어업인 소득 기반 조성에 힘을 기울인다.

남원시 관계자는 “다슬기 방류는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두억마을 ‘숯밥, 하룻밤’ 체류형 힐링 프로그램 첫선

완주군 용진읍 두억행복드림마을(대표 박종배)이 지역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1박 2일 체류형 힐링 프로그램 ‘숯밥, 하룻밤’의 시범운영에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2026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공모 선정으로 마련됐다.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깊은 휴식과 디톡스가 필요한 3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기획됐으며, 회차별 5팀 소규모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세월의 맛을 간직한 전통 한옥에 머물며 주민들이 직접 치러내는 시골 밥상인 ‘두억 자연밥상’을 맛본다. 이어 편안한 숲길을 걸으며 자연에 몰입하는 ‘마음 쉼 명상’과 나만의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우드버닝 도마 만들기’ 등 다채로운 휴식과 정을 체험한다.

두억행복드림마을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참가자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수렴하고, 마을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상생하는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 모델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배 두억행복드림마을 대표는 “숲에서 쉬고 따뜻한 밤 한 끼를 나누는 소소한 순간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어가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장기 제6회 한궁대회 ‘성황’

남원시는 20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내 실내 배드민턴장에서 열린 제6회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회장기 한궁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한명숙 남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읍·면·동 분회장 등 주요 내빈, 그리고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회원으로 구성된 17개 팀 85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예선과 준결승을 거쳐 단체인 3팀과 개인전 3명이 최종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인 최우수팀에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됐다.

곽철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일자리대상 ‘우수’…고용창출 역량 입증

기업환경 개선·일자리 성과 인정 농촌 빈 일자리 맞춤형 해소 호평

완주군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탁월한 고용 창출 역량과 지역 경제 활력을 입증했다.

지난 19일 완주군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완주군은 민선 8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회적경제 및 농업·농촌 자원 연계 일자리 창출, 전 세대·계층별 복지 일자리 확대 성과를 전국에 알렸다.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은 전국 지자체의 일자리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정책을 확산하는 정부 대표 평가 제도



<사진=완주군>

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중앙정부·광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비롯해 기업 인프라 지원을 통한 고용 기반 확대, 농촌 빈 일자리 맞춤형 해소책, 세대·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구직 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수상은 민

선8기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9기에도 군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복경제도시 완주 대도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100억 투입 청년농촌보급자리 착수

대산면에 28세대·센터 조성 8월 중 시공사 선정 후 착공

남원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대산면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의 공사 입찰공고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섰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입찰공고 절차가 8월 중 마무리되는 대로,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곧바로 본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은 농

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주요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치고 공사 발주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농촌 유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에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대산면 신계리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원(국·도비 및 시비)이 투입되며, 가족형·신혼부부형·청년형 등 청년 가구의 특성에 맞춘 임대주택 28세대와 주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티센터 1동이 들어설 계획이다.

남원시는 시공사 선정 이후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대산면 청년농촌보급자리를 청년층 유입과 농촌 활력 창출을 위한 대표 정주 공간으로 만들 어갈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은 단순한 주거 공급 사업이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싶고,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 정책 지원사업”이라며 “청년의 시각에서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대산면에서 청년 귀농·귀촌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주요 현안사업장 잇단 점검

사업 추진상황·안전 실태 점검 용수 부족 현장 찾아방안 모색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주요 현안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군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직접 살피고, 사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8일, 공설운동장 내 복합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주요 시설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어 사업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기업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과 다화용기 세척장 리모델링 사업, 권일송 시민 생가터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각 사업의 추진상황과 현장 여건을 살피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19일에는 기숙형 비즈니스센터를 시작으로 치유농업 농촌테마파크, 섬진강 장군목 진입도로 개설사업, 농촌유학 거주시설, 섬진강 파크골프장, 공설 추모공원 등 주요 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각 사업장의 추진상황과 현장 여건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업별 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적성 묘동제 용수 공급 문제와



<사진=순창군>

금과 산수제 저수량 고갈 현장 등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장도 찾아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최영일 군수는 “모든 사업이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은 순창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유한회사 부송건설
고창에 3년 연속 장학금 기탁

(제)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심덕섭 고창군수)은 지난 19일 유한회사 부송건설 고양규 이사가 고창군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규 이사는 지난 2024년 첫 기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장학금을 꾸준히 전달하며,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좌절하지 않고 마음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서 고양규 이사는 “고창의 소중한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작게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며 인재 양성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고창군장학재단 이사장인 심덕섭 고창군수는 “보내주신 뜻이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 이서면지사협
1인 중장년 남성 ‘요리교실’ 진행

완주군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택균, 소미례)가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의 자립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복완주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이서천사 요리교실’ 3회차 과정을 진행했다.

‘이서천사 요리교실’은 혼자 생활하는 중장년 남성들이 요리를 배우며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일상생활의 자립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다.

현장에서는 요리 실습과 함께 혈압·혈당 측정과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저염·저당 식생활과 영양표시 확인법 등 건강·영양교육도 병행해 참여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임현성 씨, 김제시에 사파리 모자 6,300개 기탁

이웃 온열질환 예방
꾸준한 나눔 이웃사랑 실천

김제시는 20일 광화면에 거주하는 임현성씨가 계속되는 폭염 속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파리 모자 6,300여(4,700만 원 상당)개를 직접 마련해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임현성씨가 일부 물량을 직접 구입하고, 뜻을 함께 하는 관련 업체에도 기탁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협조를 구해 대규모 물량을 마련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더해진 기부다.

기탁된 사파리 모자는 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돼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임씨는 “계속되는 폭염에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돼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는 20일 광화면에 거주하는 임현성씨가 사파리 모자 6,300여(4,700만 원 상당)개를 직접 마련해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제시>

군산 어린이집 2곳, 폭염 속 이웃사랑 실천

생수·수박화채 기탁

군산타타대우어린이집(원장 정영실)과 디오션이편한어린이집(원장 양민제)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옥산면에 생수 500ml 1,000병과 수박화채 20개를 기탁했다.

군산타타대우어린이집은 매년 어린이집 아나바다 활동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해 왔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디오션이편한어린이집 또한 원생

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두 어린이집 원장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 주변의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건강하게 지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산면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어린이집 관계자와 원생,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생수는 폭염에 취약한 관내 이웃들



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샘초롱클럽하우스와 화채 나눔

정읍시가 샘초롱클럽하우스 회원과 자원봉사자 20명이 함께 만든 화채 200개를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에 전달했다.

시는 지난 18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회복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동인 ‘도란도란 나눔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출

발했다. 물품이나 음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 회복과 자립을 위해 활동하는 샘초롱클럽하우스 회원들이 준비 과정부터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날 활동에는 회원 15명과 자원봉사자 5명이 참여했다. 정성껏 만든 화채 200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정읍=김정인 기자



남원 주천면, 넷째 출산 가정 축하

남원시가 최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획득하며 아동 권리 중심의 도시로 도약한 가운데, 일선 행정 현장인 주천면(면장 노환순)이 이에 발맞춘 주민 체감형 복지 사업을 활발히 펼치며 시너지 창출에 나섰다.

주천면은 최근 관내 가정에 넷째 아이가 탄생함에 따라, 노환순 면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고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행정복지센터로 초빙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주천면은 이번 행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 남원의 비전에 맞춰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정숙자컬렉션 정숙자 대표
부안군에 100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19일 위도면에 거주하며 오랜 기간 지역을 지켜온 정숙자컬렉션 정숙자 대표가 부안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위도면에서 나고 자라며 평생을 지역과 함께 온 정숙자 대표는 자신의 뿌리이자 삶의 터전인 부안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기탁에 동참했다.

정숙자 대표는 “오랫동안 위도에서 살면서 부안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많은 정을 나누며 살아왔다”며 “지역 발전과 이웃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기탁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익산 송학동 ‘착한가게’
모현삼성치과 100호점 가입

익산시 송학동에 이웃을 위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가 100곳으로 늘었다.

송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일 ‘모현삼성치과’를 찾아 착한가게 현판식을 진행하고 나눔 동참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모현삼성치과가 100번째로 동참하면서 송학동 착한가게는 모두 100곳으로 늘게 됐다.

한편 모현삼성치과는 보건복지부 인증 전문의를 비롯한 의료진의 협력진료 체계를 바탕으로 치아교정, 임플란트, 보존·보철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진단 시스템과 자체 기공실을 갖추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결론

정민제 군
정영득 전주비전대교수, 김복희(전 우림중교사) 장남
홍윤희 양
홍성익, 김성희 장녀

일시 : 8월 22일 토요일 오후 12시
장소 : JW메리어트호텔 서울(서초구 신반포) 5층 그랜드볼룸

열대야 극복 방법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 하기

알코올 및 카페인 음식 자제

미지근한 온도로 샤워하기

자기 전 핸드폰 전자기기 사용 자제

탈의 대신 얇은 잠옷 입고 자기

〈一事一言〉



세금으로 움직이면서 권력은 사유화...
전북교육청은 언제까지 사학 눈치만 볼 것인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운용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가. 질문의 답은 명확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거쳐 들어가는 국민의 혈세, 즉 공적 재정이다. 그러나 현장의 채용 행태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사뭇 다르다. '돈은 세금으로, 채용은 이사장 입맛대로'라는 비판이 전북 교육 현장을 매섭게 때리고 있다. 공공재 역할을 해야 할 교육 현장이 일부 사학 법인의 '개인 사유지'처럼 운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감독해야 할 교육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눈치보기' 행정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전북교육청이 사립학교 신규 교원 임용시험 1차 합격자 선발 배수를 기존 3배수에서 최대 5배수로 완화 조치한 것은 이러한 눈치보기 행정의 결정판이다. 당초 3배수 제한은 필기시험 위약을 통해 사학의 자의적인 면접 개입과 채용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사학 재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청은 슬그머니 후퇴했다. 1차 필기 합격 기준을 5배수로 넓혀주면, 재단은 2·3차 면접과 수업시연 과정에서 자체 평가라는 이름으로 특정 인물을 선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여지를 훨씬 넓게 갖게 된다.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한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차 필기시험을 합

격한 유능한 인재들이 배출되었음에도, 2·3차 자체 전형을 거치며 아예 '최종 합격자 없음'으로 처리되어 버리는 과기한 현상이다. 신규 교원 총원율이 60%대까지 급락하는 파행이 이어져도 사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재단이 미리 점찍어 둔 이른바 '내정자'가 1차 필기시험에서 탈락하면, 아예 전체 채용을 무산시켜 버리는 전형적인 편법을 쓰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학의 '깜깜이 운영'은 비단 교원 채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은 공개채용 의무조차 없어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친인척, 측근들이 '무혈입성'하는 통로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견제해야 할 교원인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해졌고, 법인의 자의적인 전보나 징계 강행에도 견제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사학은 늘 '자율성'을 외친다. 그러나 자율성은 철저한 책무성과 공정성이 전제될 때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다. 교직원의 봉급부터 학교 운영비의 절대다수를 국민의 세금인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하면서, 인사권과 채용권만큼은 닫힌 문 뒤에서 행사하겠다는 것은 투명 행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특권의식 일 뿐이다. 사학의 편법 채용으로 발생한

교원 공백은 기간제 교사의 남용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교실 속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전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사학 법인의 압력에 굴복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첫째, 1차 필기시험 합격 배수를 즉시 3배수 이하로 재조정하여 자의적 개입 가능성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둘째, 면접과 수업시연 등 2·3차 심사과정까지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부정이나 파행이 발생한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학급 수 감축, 재정 지원 제한 등 단호한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공채 의무화제도를 도입하여 사학 행정 전반의 깜깜이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교육청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학의 공성은 결코 확보될 수 없다. 교육청이 사학의 눈치를 보느라 공정의 가치를 저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도민의 혈세를 유용하는 일에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북교육청의 결단력 있는 사학 개혁 조치를 촉구한다.

사 설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 이제 정부가 답할 때다

정부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 결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남원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 14일 전북도에 국립의전원 설립 부지 검토보고서를 요청한 것은 이제 논의가 선언을 넘어 실제 입지 결정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월락동 일원 예정부지 6만4,792㎡ 가운데 55.1%를 이미 매입했고 나머지 부지 대부분도 매매 동의를 확보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한다. 남원은 갑자기 국립의전원 유치를 주장하고 나선 지역이 아니다.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을 믿고 8년을 기다렸고, 부지를 확보하며 국가 정책에 맞춰 준비해왔다. 국립의전원의 목적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데 있다면 그 설립 취지를 가장 충실하게 구현할 곳이 어디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더욱이 국립의전원은 단순히 학교 건물 하나를 지방에 세우는 사업이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남원에서 하고 임상교육과 수련은 서울에서 하는 이원화 방식이라면 결국 학생과 의료인력은 다시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남원에는 간판만 남고 핵심 기능은 서울에 집중되는 '무늬만

지방 국립의전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서울과 지방에 각각 캠퍼스를 두는 방식이 거론되는 만큼 더욱 경계해야 한다.

박희승 의원이 국립의전원뿐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까지 남원에 함께 배치해 교육·수련·진료·연구 기능을 집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학교와 수련병원이 가까워야 한다면 학교를 서울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국가 공공의료의 핵심 병원을 지역으로 옮기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그래야 수도권 의료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 새로운 공공의료 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

전북도 역시 이제 단순한 '남원 유치'를 넘어 '남원 본원·교육·수련 일체화'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남원시와 지역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부 또한 행정 편의와 수도권 중심의 기존 의료체계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국립의전원은 지역에 건물 하나를 나눠주는 균형발전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8년을 준비한 남원에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와 약속이 아니라 정부의 결단이다.

▲오늘의시

발견의 기쁨 / 이동순

누더기처럼
함석과 판자를 다닥다닥 기운
낡은 창고 벽으로 그 씨앗은 날려 왔을 것이다
거기서 더 이상 떠나가지 못하고
창고 벽에 부딪쳐
그 역새와 바람이와
영경위는 대충 그곳에 마음 정하고 씩을
띄웠을 것이다
사람도 정처 없이

이렇게 이룬 터전 많았으리라
다른 곳은 풀이 없는데
창고 틈새에만 유난히 더부룩 돋았다
말이란 놀이 그늘 찾아
창고 옆으로 왔다가 그 풀을 보고
맛있게 뜯어먹고 갔다
새 풀을 발견한 기쁨 참지 못하고
연신 발굽을 차며
히히힝 소리 질러댔다

ㅣ기고ㅣ

인스타 속 숨은 명소, 숨겨진 위험까지 보셨습니까?



루질이 이어진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나만 아는 숨은 명소'를 실시간으로 불러낸다. 연안을 찾는 시간도, 장소도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다.

화면은 많은 것을 보여준다. 붉은 노을과 탁 트인 바다, 바구니 가득한 해산물, 아무도 없는 해변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물때와 일몰, 깊은 갯골, 통신이 끊기는 지점, 어둠 속에서 사라지는 퇴로다.

누군가 무사히 다녀왔다는 경험은 오늘 의 안전을 보증하지 않는다. 바다는 화려

한 영상과 같은 모습으로 기다려주지 않는다.

간조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차이가 생긴다. 이용자는 물이 가장 많이 빠진 시간을 '들어가기 좋은 때'로 생각한다. 안전관리자의 눈에는 다르다. 간조는 물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점이다. 이미 갯벌 깊숙이 들어갔다면 출발의 시간이 아니라 돌아올 시간을 계산해야 할 순간이다. 같은 시간을 두고 한쪽은 기회라고 보고, 다른 쪽은 위험의 시작이라고 본다. 그 간격에서 고립사고가 생긴다.

그래서 연안을 찾기 전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물때와 기상, 일몰 시각이다. 현장에 도착하면 들어가는 길보다 돌아오는 길과 높은 대피장소를 먼저 살펴야 하며 반드시 휴대해야 될 구명조끼, 휴대전화, 손전등 등을 준비하면 좋으며 혼자 움직이지 않는 것도 기본이다.

야간 해변 행사에서는 음주 후 입수하지 말아야 하며, 배사장이나 갯벌에 차량을 무리하게 진입해서도 안 된다. 차량이 빠지거나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면 재산보다 생명이 먼저다.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해양경청은 변화하는 연안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위험을 줄여나갈 것이다. 그러나 순찰과 시설만으로 모든 빈틈을 메울 수는 없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위험을 알아보는 한 사람의 판단이다.

바다는 멀리해야 할 곳이 아니다. 다만 화면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다. 물때와 이동로, 그리고 돌아서야 할 시간이다. 숨은 명소를 찾았다면, 그 세 가지도 함께 찾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부안해양경찰서장
홍경 김승원

시인 약력 : 1950년 경북 김천 출생. 경북대 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마왕의 잠'이 당선돼 등단했다. 1989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이 당선됐다. 시집으로 개밥풀, 물의 노래, 지금 그리운 사람은, 철조망 조국, 그 바보들은 더욱 바보가 되어간다 등이 있다. 2003년 민족서사시 홍범도(전5부작10권)를 발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8월 21일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월간)	
www.jeonbuktimes.co.kr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원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₂ 줄이기, 바로 지금 나부터!

우리의 작은실천이 푸른 하늘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C

O₂

↓

JBT

전북타임스신문

김제시, 국가예산 1조원 확보 '정조준'



예산은 더 커졌지만, 문턱은 더 높아졌다.

정부가 2027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해 나온 말이다.

적극재정 기조 속에서도 성과와 우선 순위가 분명한 사업만 선별하여 반영하겠다는 방침으로, 지자체 간 국가 예산 확보 경쟁은 사실상 더 치열해졌다.

또한, 정부가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하기로 하면서 김제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면서 지역성장을 이끌 핵심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편집자 주)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

시는 매년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매력 있는 사업 발굴이 그 첫 단계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지역 주요 핵심사업 정부안 반영에 박차

는 총괄 관리사업 및 중점 대응사업을 선정하여 중앙부처, 기획처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시장이 주재하는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및 부처단계 대응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별 쟁점사항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대응능력을 개발해 사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갔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가예산 편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세종사무소를 운영하며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빈틈없는 국가예산 확보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 국가예산 확보의 승부처, 중앙부처·기획처·국회 찾아 씀 없는 설득전

정부 예산안 편성은 부처별 예산안 작성, 기획처의 부처안 심사 및 정부안 편성, 국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김제시는 정부 예산안 최대반영을 목표로 이들을 직접 찾으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성주 김제시장이 직접 기후부 장관 면담(2026.6.13.), 기획처 간부공무원 일제 방문 면담(2026.6.22.), 기획처 임기근* 차관 면담(2026.6.29.) 등을 잇달아 추진하며 국회 반영을 위한 씀 없는 설득전에 나서고 있다.

*면담 당시 기획처 임기근 차관, 현재 국무조정실 실장

▶ 지역을 성장시키고 시민의 삶을 촘촘히 챙길 김제시 핵심사업

2027년도 국회 반영을 위한 김제시 핵심 사

업분야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이재명정부 국가재정의 핵심 투자 방향인 AI,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분야 AI 로봇 제작을 위한 △농업 AI 로봇 표준화 및 온디맨드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290억원, 2027년 국비 30억원), 특장산업의 대형 건설기계 분야 진출 및 AX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총사업비 258억원, 2027년 국비 31억원)을 꼽을 수 있

국가정원 조성(총 사업비 4,500억원, 2027년 국비 10억원), AI 실증도시·현대차 새만금 투자의 성공적인 실현을 뒷받침할 수변도시 일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스마트 수변도시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총사업비 450억원, 2027년 국비 7억원), 새만금 수질개선과 인근 도심 약취 해소 위한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총

비 100억원, 2027년 국비 5억원), 국가 지정 명승인 망해사 일원 정비를 위한 △망해사 일원 국가 명승지 조성(총사업비 100억원, 2027년 국비 21억원) 등이다.

이 사업들은 지역 농업 및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이라는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다.

▶ 정부안 확정 전까지 최대 반영을 위해 행정력 집중

현재 기획처 예산심사의 한창인 가운데, 9월 초 정부안 국회 제출 전까지 김제시는 기획처 주요 예산 책임자와 대면 면담,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수시 접촉으로 사업의 정책 부합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막바지 총력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구 및 전북 연고 국회의원실과도 긴밀히 협력해 기획처 원팀 대응은 물론,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예산안 의결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는 재정 한계를 넘어 지역을 발전시킬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돌파구로, 민선 8기 4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확보에 이어 민선 9기도 국가예산 1조원 달성을 위해 결심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9월 초까지 이어질 기획처 심의와 이후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에 흔들림 없이 대응해 한 사업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다. 이 사업들은 현 정부 정책에 정확히 답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중점 사업들이다.

둘째,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거점인 새만금을 글로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새만금 녹지면적 확충 및 수변도시와 연계한 관광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만금

사업비 340억원, 2027년 국비 75억원)이 있다.

이 사업들은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과 누구나 머물고 싶은 명품 새만금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셋째, 지역의 주요 산업 육성과 대표 관광지 특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어업인 신규 유입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새수면 디딤돌 양식장 구축(총사업